비투기성 위반 농지 '처분 유예→제외'…2-3년 특례

정부,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

상속농지·관행 임대차 등 제외유형 구체화
농지조사 논란 속 대책…목표 후퇴 우려도
송미령 "형평성 문제 대해선 논의 더 필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민들의 반발과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아예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불법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할 경우 처분 유예를 해주겠다는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로 처분에서 제외할 유형을 구체화하고, 이들 농지를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기간을 두는 내용의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이번 조사 결과로 처분을 하지 않는다"며 "투기 이외의 것에는 처분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형식적으로 농지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농지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투기와는 성격이 다른 만큼상속 농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등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반면 명백한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은 여전히 처분 대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취득한 뒤 경작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농업법인을 통해 농지를 쪼개 팔거나 임대해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경우 등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1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법 위반에 대해 농지은행에 임대·관리를 맡기는 경우 처분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처분 유예'라는 표현으로 농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이번에는 비투기성 위반에 대해서는 처분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특별조치법을 통해 불법 농지를 양성화할 수 있도록 특례기간을 두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례기간은 2-3년을 검토하고 있다.

특례기간 내에 적법하게 바로잡지 못하더라도 비투기성 위반이라면 이를 이유로 처분 절차를 다시 진행하지는 않는다.

정부는 농지를 팔거나 맡기고 싶어도 농지은행 매입량이 부족하다는 현장 지적에 따라 내년도 예산 증액을 국회와 협의하고, 매입 대상을 진흥지역 농지 위주에서 농업 활용이 가능한 비진흥지역 농지까지 확대한다.

송 장관은 농지은행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25% 증액한 안을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특별조치법을 이달 중 발의하고 연내 국회 절차를 마무리하는 한편, 조사 결과를 반영한 농지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농지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농지 처분이 대거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농지가격 하락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21일 당정협의를 열고 후속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이후에도 농지조사의 범위와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 문제를 둘러싼 농민들의 불안과 반발이 계속됐고,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도 농지조사를 둘러싼 문제점과 처분 기준 등을 놓고 질타가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이번에 상속농지와 관행적 임대차 등 비투기성 위반을 처분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기로 하면서 당초보다 처분 대상의 범위는 한층 좁아지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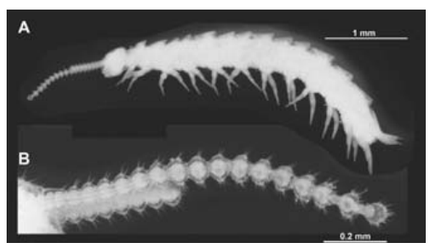
다만 처분 대상이 이처럼 좁아지면서 당초 투기성 농지 취득을 엄단하겠다는 목표가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처분명령을 받고 이행한 사람과 이번 조치로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사이의 형평성 문제도 남아 있다.

송 장관은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이미 처분 명령을 받은 분들에게 특례를 적용할지 여부도 국회 논의 단계에서 좀 더 의논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거제도서 애지네류 신종 발견…국내 2종 기록

섬 생물다양성 조사…'한국애지네' 명명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8일 "섬 지역 생물다양성 조사 과정에서 경남 거제도 토양에 서식하는 애지네류를 신종으로 확인하고, '한국애지네'로 명명했다"고 밝혔다. 〈사진〉

애지네류는 몸길이가 2-8㎜에 불과한 작은 절지동물이다. 겉보기에는 지네를 닮았지만 입 모양은 곤충과 유사해 지네나 곤충과는 다른 '결합강(Symphyla)'으로 분류된다.

빛을 싫어해 눈이 퇴화돼 있으며, 숲속 낙엽이나 습한 흙 속에 숨어 살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전 세계적으로 약 200종의 애지네류가 알려져 있으며, 국내에는 그동안 애지네와 동양애지네 2종만 기록돼 있었다.

호남권생물자원관과 황의욱 경북대 교수 공동연구진은 거제도에서 채집된 애지네의 형태와 유전정보를 분석해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종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국내 최초로 발견된 점을 고려해 '한국애지네(Hanseniella koreana)'라는 이름을 부여했다.

한국애지네는 생김새가 비슷한 기존 종에 비해 머리 폭이 넓고 꼬리 마디가 두꺼우며, 몸마디에 난 미세한 털이 더욱 촘촘한 형태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김종국 호남권생물자원관 생물분류연구부 전임연구원은 "섬 생태계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생물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말했다.

연구 결과는 국내 동물분류 전문학술지인 '한국동물분류학회지(Animal Systematics, Evolution and Diversity)'에 발표할 예정이며, 한국애지네는 '국가생물종목록'에도 공식 등재할 계획이다. /목포=정해선 기자

백승주 균형발전·윤난실 시민주권부시장 임명

인사청문 등 거쳐 정무직 인선 마무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시의회 인사청문 절차를 마친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과 윤난실 시민주권부시장을 8일 임명했다. 〈사진〉

두 부시장은 임명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이날 오전 통합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하며 업무에 들어갔다. 오후에는 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 대비한 업무 공유에 참석해 주요 시정 현안과 소관 업무를 살폈다.

이번 임명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부시장 시민추천제'를 통해 시민이 후보자 추천 과정에 참여하고, 시장 지명과 시의회 인사청문을 거쳐 이뤄졌다.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은 장성 출신으로 국립순천대학교 석좌교수를 지냈다.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과 재정혁신국장 등 중앙정부 주요 보직을 역임했으며, 정책기획과 행정조정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왔다.

백 부시장은 앞으로 균형발전과 예산, 자치분권, 조직, 관광, 건설, 에너지산업, 농축산식품, 해양수산 등 분야를 총괄하며 특별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이끌게 된다.

윤난실 시민주권부시장은 강진 출신으로 제4대 광주시의회 의원을 지냈다. 대통령비서실 제도개혁비서관과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혁신자치전문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시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이끈 경험을 갖고 있다.

윤 부시장은 시민주권을 비롯해 청년, 교육, 보건복지, 여성·가족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를 총괄한다.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되는 참여행정을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민형배 시장은 "두 부시장이 시민추천과 인사청문의 검증을 거쳐 임명된 만큼 그 의미와 책임이 크다"며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특별시의 안정적 운영과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힘써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안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 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김성석(670128-*******)상속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됨.
○사건번호: 광주가정법원 2026느단4443 상속한정승인
○공 고 인: 김민지
○한정승인수리일: 2026년 10월 7일
○공고기간: 2026년 10월 9일 ~ 2026년 12월 9일
○연 락 처: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271, 105동 2104호(정자동, 북수원자이렉스비아) (010-4520-1238)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돈
받아 드립니다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228-0990, 010-4601-1390

광주지방 중대범죄수사청인접
부동산 매물들입니다
1) 매매{매가11억}중흥6거리 광장코너 땅상업지 대지93평
2) 매매{4억5,000}중수청인접 대69평4층건물 월세330만원
3) 매매{13억5,000}중수청인접 대지193평 단층건물 평당700
법률사무실, 커피, 카페, 음식점 최적
4) 매매{2억8,800}중흥6거리 인접 대지64평 평당450만원
5) 임대 중수청인접 대로변 1층90평(면적분할가)
법무사, 변호사사무실 최적
6) 임대 중수청인접 대로변코너 2층70평(면적분할가)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문의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복사기 ▫컴퓨터 ▫FAX
▫레이져 및 잉크젯 프린터
▫전산소모품
▫레이져(토너/드럼)
▫카트리지
▫각종 잉크류
▫복사용지
▫팩스용지 ▫판매
▫임 대 ▫A/S
T.375-5880